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청사에서 공식 환영식 후 빤라윳 총리와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국 4.0·메콩강 공동관리 통해 韓·泰 시너지

## 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

### ②‘韓 혁신성장-태국4.0 융합’ 현실이 되다 -본지 우승준 기자 대통령전용기 탑승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태국 순방은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상의 양자 공식방문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까지 확대·발전시킴으로 미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2박3일간 태국에서 정상회담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접견,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 태국 교육부 주관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시상식 참석, 동포간담회 등 숨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방콕 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태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장에 태국 빤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참석, '스마트팩토리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전통적·과학기술·첨단산업까지 협력 文 “메콩강 발전, 대한민국 발전과 연계”

특히 문 대통령은 태국을 공식방문하기 전 양국간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공식방문 전 현지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양국은 작년에 관계수립 60년을 맞이했다. (또) 전략적동반자관계가 됐다. 나는 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우호협력의 내실있는 발전을 바란다. 이를 위해 빤라윳 총리와 함께, 양국이 함께할 새로운 60년을 상상하고 얘기 나눌 것을 기대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양국이 함께 열어갈 미래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미 인프라·물관리·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대응하길 희망한다. 태국 정부의 태국4.0 정책과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메콩유역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4배 길이에 달하는 메콩강은 강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3억명이 넘어 ‘인도차이나의 젖줄’로 불린다. 메콩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어장으로 아마존강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고 주변 땅은 비옥하다”며 “대한민국은 메콩강이 인도차이나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과 연계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행복한 메콩을 위해 대한민국은 수자원 관리 협력부터 시작했다. 현재 메콩유역 5개국과 양자사업은 물론, 메콩강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또 태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경제협의체 ACMECS와도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태국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태국은 인구 약 6900만명의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 보유국”이며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라며 “(태국은) 아직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40억불 수준으로 아세안 6위, 투자 8위에 지나지 않아 향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운을 뗐다. 실제 태국은 2018년 기준 인구수 약 6779만명 및 국내총생산(GDP) 4872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주 경제보좌관은 “태국 정부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스타트업 육성·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려는 ‘태국4.0’ 정책과 4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맞춰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업간 협력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태국 정부는 현재 중진국 합정 탈출을 위해 태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빤라윳 짠오차 총리가 2일 오후 방콕 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4.0이라는 종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 전반에 ICT를 적용해 미래산업 및 스타트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주 경제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전통신업·인프라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스타트업·디지털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련 기관간 MOU(양해각서)가 추진되고 있다”며 “태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개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文 “순방 통해 협력 제도적인 틀 마련”

#### 韓-泰, 효율적인 물 관리 협력모색 물 관리 분야서 해외 진출 발판마련

외교부가 발표한 태국 개황에 따르면, 태국의 일반 경제 동향은 올해 3%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태국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된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태국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태국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11년 아래로 적자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컴퓨터·보석·전기회로·플라스틱·기계류·고무·쌀·해산물·타피오카·설탕·새우 등 공산품과 농수산물이다.

한편 양국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협력도 공고히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태국이 수립 중인 ‘국가물관리전략계획(향후 30년 기적 물 관리 국가방향 정책)’이 방증한다. 여

권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 생활용수 관리·▲ 흥수 관리·▲ 수질 및 수자원 관리·▲ 발원지 환경개선·▲ 유역 붕괴 위험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최대 10조 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태국이 물 관리 정책에 종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렇다. 태국은 지난 2011년 수십 조원의 피해를 낸은 ‘대홍수’를 직면했다. 그해 7월 말부터 3달간 지속됐던 이 흥수는 약 283명의 사망자를 발생했고, 최대 5억 1000달러의 재산피해를, 태국 내 26개 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시킨 자연재해다. 즉 대홍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물 관리 계획 관련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했다. 찻사이 태국 정부 부총리는 지난 3월 방콕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행사 때 “태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요청” 메시지를 발신했다. 연장선상으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 정부가 구축한 물 관리 분야 기술력을 자국 물 관리 계획 수립에 첨부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물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지난 8월 ‘물 관리 공동위원회’ 준비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 등을 통한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며 “태국은 메콩 물 관리 협력의 핵심 교두보로 삼아 물 관리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태국=우승준기자 dn1114@metroseoul.co.kr